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3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예레미야 · 로마서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3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 6 나의 묵상 노트
- 10 기도제목표
- 11 매일묵상 Q.T.
- 65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3

March 20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제2차 성찬식	2 중직자	3 15교구	4 1교구	5 16교구	6 6교구	7 교역자
8 전교인	9 중직자	10 11교구	11 2교구	12 7교구	13 5교구	14 교역자
15 전교인	16 중직자	17 13교구	18 4교구	19 8교구	20 10교구	21 교역자
22 전교인	23 중직자	24 14교구	25 3교구	26 12교구	27 9교구	28 교역자
29 전교인 종려주일	30 중직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시작 3.30.~ 4.3.	31 17교구				

교회 주요 일정

3월 1일

제2차 성찬식

3월 29일

종려주일

3월 30일~ 4월 3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개인 전도 계획

2015 April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te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동안 매일 성경을 1장씩 묵상하던 방식이 지금은 17절 내외로 정한 본문을 지면에 함께 실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충현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나의 묵상 노트(2015.1.9.)

한숙정 권사(장년2부 교사)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 행 16:1~18

중심 내용: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실라와 동행 더베→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동행→브루기아, 갈라디아→무시아→드로아→사모드라게→네압볼리→빌립보

본문 관찰

Sins(피해야 할 죄)

3절 할례를 행하니(율법적 행위)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악령, 무당 귀신)

Promise(하나님의 약속)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Command(순종해야 할 명령)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Knowledge(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성령 하나님, 7절 주의 영(성령)

9절 복음(성자)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14절 하나님(성부)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성자)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성령)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삼위일체)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심(치료의 하나님)

Supplication(간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읽으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점을 치며 악령에 잡혀 종노릇하는 여종을 치유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곳을 집중 기도하면, 당연히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도우시는 줄 알았나이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지 모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일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루디아처럼 공개함으로 더욱 전도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에 잘 모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충현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소낙비처럼 흠족히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회복의 역사 이루사 우리가 순종하여 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묵상 노트(2015.2.11.)

한숙정 권사(장년2부 교사)

아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본문 말씀: 렘 13:18~27

중심 내용: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원래의 뉘이요 정하여 준 분
것으로 돌이킬 가망이 없음

본문 관찰

18~19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갈 여호야긴 왕(당시 18세, 여고니야 렘 29:2)과 왕의 어머니
니느후스다(왕하24:8)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

20~27절 포로로 끌려갈 때 여자들을 강제로 욕보이고 맨발로 끌려가며 철저히 수치를
당하여 인격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상황

Sins to confess(피해야 할 죄, 깨달은 죄, 고백해야 할 죄)

22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23절 악에 익숙한

25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

27절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
한 것

Promises to claim(청구, 요구할 수 있는 약속들)

18절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19절 네 겹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같이 흠으리로다

25절 네 뉘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것이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27절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Commands to obey(복종해야 할 명령)

18절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Lift up your eyes and see)

27절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Woe to you O Jerusalem!)

Knowledge of God(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절 the LORD sets over you-절대주권

25절 여호와와 말씀(declares the LORD)-공의

27절 화 있을진저-공의, 심판의 하나님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공홀, 자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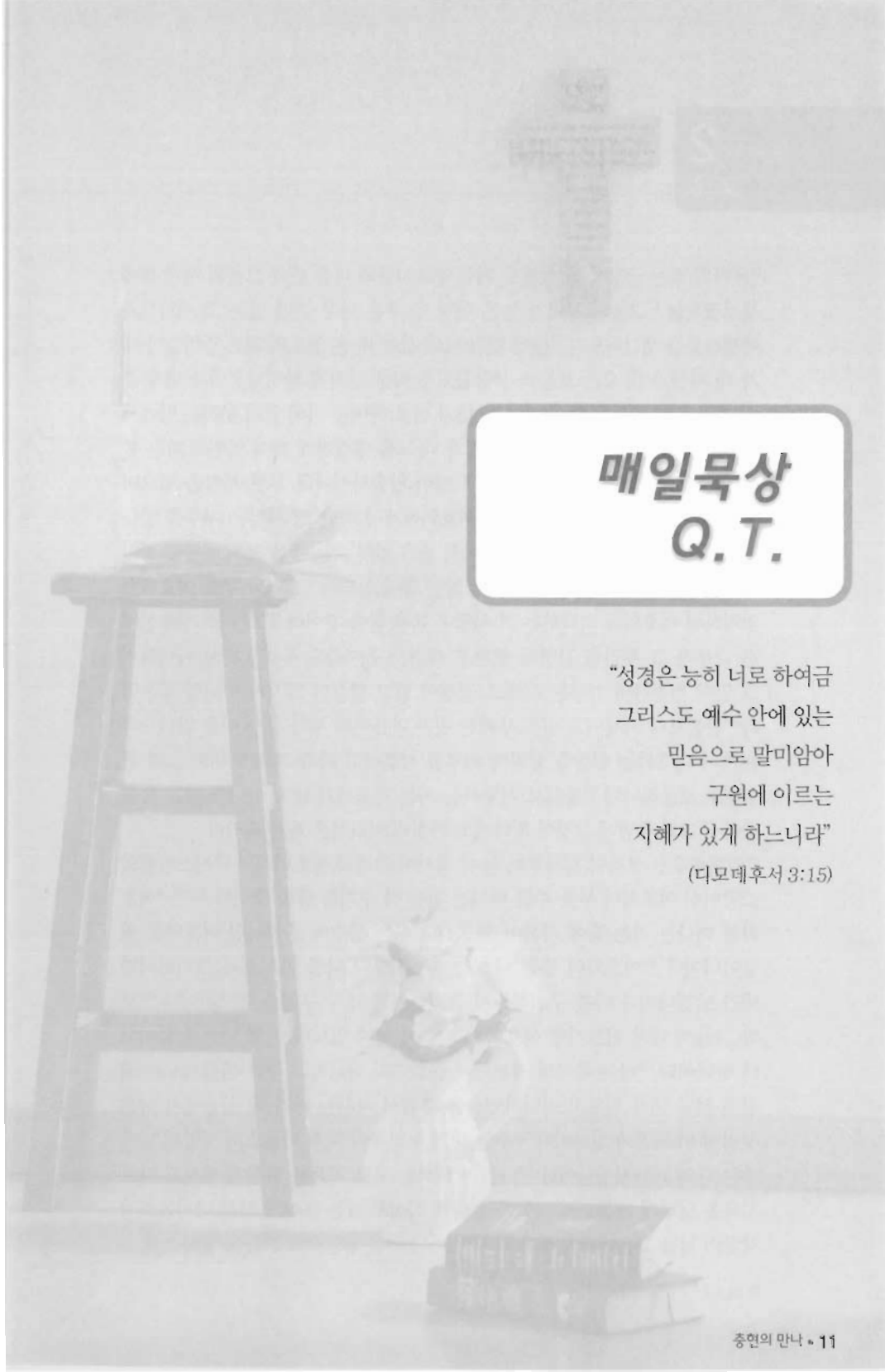
Supplication(간구)

자비로우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인 유다가 완강하여 헌신되지 못한 마음과 돌이키기를 거부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멸망을 초래했음을 읽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무시무시함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며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결하게 하실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온전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택한 백성들의 거부로 이방인들에게 까지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 내 나라, 내 민족에게,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습관에 내 몸을 사용하지 않게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오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범사에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기도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① 사순절기(2.18.~4.4.)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 히 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1~11절)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5절),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7절). 하나님은 저주와 복,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9절)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유다 백성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알려 주는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저주의 길을 버리고 복의 길을 가지 못한 것으로 점철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7, 13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12~18절)

하지만 여호와께서 고치시면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14절). 그럼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저주의 길로 나아간 자들은 그 이름이 흠에 기록되어 바람이 한 번 불어도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13절).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 지어다”(15절)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성경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2)라고 인류 전체를 고발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Q.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이다

¹³⁹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¹⁴⁰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 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¹⁴¹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¹⁴²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이다 ¹⁴³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⁴⁴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¹⁴⁵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¹⁴⁶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러 둔 곳들과 베냐민 땅과 ¹⁴⁷평지와 산지와 네겟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¹⁴⁸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화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19~23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왕들과 평민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19~2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유다 민족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십니다(23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렘 34:14 참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24~27절)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는 화염점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27절).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 산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그때 안식일 준수는 창조원리가 아니라 출애굽과 결부된 구속 원리로 재해석되어 계명으로 내려졌습니다(신 5:15 참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수 21:44, 22:4 참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이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히 4:8 참고).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막 2:2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20, 23, 27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누가 한 무슨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Q. 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 결말이 사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출 31:14~15 민 15:32~36 참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23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2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25 그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2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2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2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3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3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3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본문 예레미야 18:1~12 찬송가 425장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1~6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물레(녹로)를 돌리며 토기를 만드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면 토기장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6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 9~10, 11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7~12절)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9~1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12절)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끝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로 드러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나타납니다(사 64:8 롬 9:21).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진흙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Q.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¹³³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¹³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¹³⁵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¹³⁶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¹³⁷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흠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¹³⁸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피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¹³⁹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¹⁴⁰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¹⁴¹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¹⁴²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¹⁴³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나라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13~17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3절). 주님은 갈릴리 북편에 높이 솟은 레바논의 만년설과 그곳에서 흐르는 차고 풍부한 물을 예로 들어 자신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데 굴복했습니다(14~15절). 이에 주님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등과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16, 17, 19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18~23절)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했습니다(18절).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독려한 이 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말씀을 전해 주는 선지자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Q. 다함이 없는 큰 은혜 앞에서도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기도(19~23절)를 읽고 난 후 어떤 마음이 됩니까?

Q.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¹⁾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²⁾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³⁾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⁴⁾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⁵⁾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⁶⁾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이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⁷⁾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⁸⁾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⁹⁾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¹⁰⁾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¹¹⁾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¹²⁾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¹³⁾예레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와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¹⁴⁾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끈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1) 질그릇 조각의 문

토기장이의 웅기를 사고(1~13절)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3절)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의 눈앞에서 웅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심으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11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더러워진 그들을(13절) 웅기를 깨뜨림같이 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5, 11, 15절)

선언한 모든 재앙을(14~15절)

도벳으로 돌아온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집 뜰에 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14절).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15절). 유대 백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롬 2:28~29 참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유다 백성은 왜 웅기가 깨짐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Q. 겉으로 보기에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어떤 것이라면, 과연 그들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①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베나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②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③마골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④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⑤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독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⑥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리라 하셨느니라

⑦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⑧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⑨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⑩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⑪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⑫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⑬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⑭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⑮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셨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⑯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종을 뵈었나니 ⑰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⑱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1~6절)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은 성전 뜰에 서서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은 뒤 때리고, 베냐민 문 위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그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에게 ‘미골밋사뱃’이란 새 이름을 줍니다. 이는 ‘자방의 두려움’이란 뜻으로, 즉 그가 두려운 일을 당할 것이고 타인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리라는 뜻의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7~18절)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심으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강권적인 권유로 언제나 여호와와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7~8절). 그는 스스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자기 속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바울이 말한 “심령에 매임을 받은”(행 20:22 참고)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7, 11~12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14~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Q.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게 보이는 신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①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②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③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④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⑤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⑥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⑦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⑧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⑨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⑩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⑪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⑫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찌 됨인고(1~9절)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세 왕, 살룸(여호아하스)과 여호야김과 고니야(여호야긴)에게 내리신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기록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워 주신 언약의 계승자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이 그토록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10~12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세 왕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후에 각각의 세 왕에게 경고적인 예언을 주십니다. "그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11~12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룸 왕은 불과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잡혀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왕하 23:32~34 참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 7, 12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언약 백성의 대표인 세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Q.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¹³⁸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삷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¹³⁹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¹⁴⁰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¹⁴¹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얕이 아니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¹⁴²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¹⁴³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¹⁴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¹⁴⁵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¹⁴⁶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¹⁴⁷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¹⁴⁸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라

¹⁴⁹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¹⁵⁰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¹⁵¹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¹⁵²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 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¹⁵³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¹⁵⁴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¹⁵⁵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니라 ¹⁵⁶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 241: 대상 3:16 '여고니', 왕하 24:6, 8 '여호야김'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13~23절)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1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왕하 23:37)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궁궐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을 시켰으며, 탐욕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압박과 포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13~14절, 17절).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장대한 궁궐과 누각을 세움으로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 22, 30절)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니라(24~30절)

고니야(여호야긴)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왕하 24:9)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왕위에 앉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왕하 24:8~16 참고). 고니야와 결부된 말씀 중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에는 자식이 없겠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육적인 다윗의 왕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Q. 육적인 다윗의 왕위는 그들의 죄로 인해 철저한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와의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됩니까?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¹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잠긴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킬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와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와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본문 예레미야 23:1~22 찬송가 401장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1~8절)

본문은 목자를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목자'란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과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따른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암흑(暗黒) 가운데 한 줄기의 서광을 비추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5절). 한 의로운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 6, 16절)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9~22절)

9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이 이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즉,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의분으로 그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선지자'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Q.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16~17절)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²⁴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²⁵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²⁶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²⁷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²⁸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²⁹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³⁰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³¹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³²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¹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² 또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³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하고⁴ 다시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사용함이니라 하고⁵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랴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⁶ 너희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⁷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⁸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 너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있게 하려 함이로다(23~32절)

거짓 선지자들이 꾸고 있는 꿈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교함이었습니다(25~26절). 이들은 자신들의 헛된 꿈을 말함으로 여호와와 백성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27절). 그러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꿈을 전하게 그냥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28~29절).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은 거짓 꿈을 예언하고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30~3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 28, 36절)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니라(33~40절)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인 예레미야의 경고를 조롱하고(33절), 자신들이야말로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만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15과 24:11, 그리고 고린도후서 11:3과 11:20 말씀을 찾아 보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Q. 진짜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①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②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③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④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거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⑤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⑥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⑦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⑧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⑨흔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 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⑩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두 광주리(1~3절)

여호야긴(여고냐)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세 달 만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왕하 24:15 참고). 이렇게 되자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렘 23:17)라고 말하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니, 남아 있는 자들은 이제 안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여호와께서 극히 좋은 무화과들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 7, 10절)

남아 있는 자(4~10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5절). 또한 그들에게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6~7절). 이는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그들 눈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불행한 자요, 남아 있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향해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여호와께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나누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Q.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멸절당하는(10절) 날까지도 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¹¹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¹²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¹³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⁴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¹⁵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¹⁶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¹⁷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¹⁸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⁹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렘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²⁰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²¹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²²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²³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²⁴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1~7절)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꿩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3년 후, 바벨론은 두각을 나타내고 서방 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은 여전히 주님의 노여움을 격동케 하고 있었습니다(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 5, 13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8~14절)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10절).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칠십 년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칠십 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후에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단 9:1~3 참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여호와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Q. 예레미야서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¹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²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³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⁴혈통에서 나셨고 ⁵성결의 영으로는 ⁶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⁷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⁸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⁹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¹⁰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¹¹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¹²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¹³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¹⁴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¹⁵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¹⁶헬라인이나 ¹⁷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¹⁸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⁹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²⁰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²¹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 헬, 씨 2) 헬, 죽은 자의 부활로 3)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7) 함 24

예수 그리스도의 종(1~7절)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실(1절)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2~3절)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을 설명합니다(5~6절). 그는 자신을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8~17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흉악범의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던 도구였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Q. 구원에 대한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¹⁵⁸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¹⁵⁹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¹⁶⁰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¹⁶¹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¹⁶²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¹⁶³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¹⁶⁴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¹⁶⁵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¹⁶⁶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¹⁶⁷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¹⁶⁸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¹⁶⁹또한 그들이 ¹⁷⁰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¹⁷¹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¹⁷²비방하는 자요 ¹⁷³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저역하는 자요 ¹⁷⁴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¹⁷⁵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 하느니라

1)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5) 헬, 자식에 3)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18~23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악하여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사(24~32절)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처참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자신의 이기적 마음의 정욕을 따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죄에 빠진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Q.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Q.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①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②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③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④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⑤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⑥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⑦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⑧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⑨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⑩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⑪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⑫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⑬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⑭(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⑮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⑯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1~11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마 7:2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2~16절)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요 5:27).

Q.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Q. 이번 주에 들은 말씀 가운데 실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¹⁷⁾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¹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¹⁹⁾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²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²¹⁾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²²⁾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²³⁾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²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²⁵⁾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²⁶⁾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²⁷⁾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²⁸⁾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²⁹⁾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³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17~24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있는 큰 간격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특권에 따른 책임도 무시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25~29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선민의식을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면적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Q. 신앙의 이력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까?

Q.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¹⁾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²⁾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³⁾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 다 기록된 바 ⁵⁾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⁶⁾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⁷⁾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⁸⁾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⁹⁾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¹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¹¹⁾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¹²⁾ 기록된 바 ¹³⁾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¹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¹⁵⁾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¹⁶⁾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¹⁷⁾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¹⁸⁾ 그 발은 꾀 흘리는 데 빠르니라 ¹⁹⁾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²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²¹⁾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 또는 그들은 못하노 2) 시 51:4 3) 시 141 이하 53:1 이하 4) 시 59 5) 시 140:3

6) 시 107 7) 사 59:7 이하 8) 시 36:1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1~8절)

바울이 구원은 율법의 준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7~8절) 간절한 말로 답합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9~18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여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 나올 수도 없으며, 부패하여 정신(11~12절)과 언어(13~14절)와 행동(15~17절)과 영적(18절)인 면에서 모두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Q. 복음을 전할 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Q.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¹⁹⁹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²⁰⁰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²⁰¹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²⁰²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²⁰³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²⁰⁴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⁰⁵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²⁰⁶이 예수를 하나님이 ²⁰⁷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²⁰⁸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²⁰⁹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²¹⁰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²¹¹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²¹²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²¹³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 또는 정죄 2)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19~24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이 '한 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완전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25~31절)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죄인을 대신할 흠 없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속죄의 제사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파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Q.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Q.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①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②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③화평을 누리자 ④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⑤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⑥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⑦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⑧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⑨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⑩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⑪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⑫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⑬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2) 또는 화평이 있고

본문 로마서 5:1~11 찬송가 304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1~5절)

바울은 '그러므로' (1절)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논증했고, 앞의 4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칭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한 관계로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6~11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Q.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Q.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¹⁴²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¹⁴³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⁴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¹⁴⁵ 모형이라 ¹⁴⁶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¹⁴⁷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¹⁴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¹⁴⁹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¹⁵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¹⁵¹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¹⁵²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12~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대응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면서(고전 15:45) 구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곧 아담이 피조된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영적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담은 죄에 굴복했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18~21절)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지만, 죄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또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따른 승리로 왕 노릇 하여 죄와 그 결과에 따른 사망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Q.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Q.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
 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
 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
 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
 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
 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
 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럴 수 없느니라(1~4절)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롬 5:20)라는 자신의 말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그 가능성을 부인하며 복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세례를 예로 들어 이 진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죄악 된 옛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5~11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영생의 힘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을 믿은 후 내 삶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¹²²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¹²³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¹²⁴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¹²⁵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¹²⁶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¹²⁷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¹²⁸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¹²⁹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¹³⁰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¹³¹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¹³²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¹³³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¹³⁴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12~18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은혜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19~23절)

바울은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주인이 바뀌는 한 종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지옥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Q. 은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Q.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¹⁾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²⁾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느니라 ³⁾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⁵⁾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⁶⁾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⁷⁾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⁸⁾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⁹⁾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¹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¹¹⁾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¹²⁾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¹³⁾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1~6절)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혼인의 비유를 들어 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아내를 지배하고 죽은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듯이, 율법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 영향력을 상실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대신 일을 시작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7~13절)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으로서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율법을 오용한 것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무엇이 죄인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고, 율법은 그 죄를 지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Q.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Q. 말씀을 통해 지적받은 죄는 무엇입니까?

¹⁴¹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¹⁴²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¹⁴³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¹⁴⁴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¹⁴⁵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¹⁴⁶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¹⁴⁷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¹⁴⁸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¹⁴⁹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¹⁵⁰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¹⁵¹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¹⁵²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거하는 죄(14~2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과 권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죄의 유희와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죄 된 본성과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아를 따르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시작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일생에 걸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21~25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동시에 죄의 법의 영향력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Q. 지금 어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Q.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⁵⁾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축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⁶⁾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⁷⁾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⁸⁾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1~7절)

본문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백성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본문을 읽으며 본문의 기록 순서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앞선 25장은 여호야김 4년에 내려진 말씀이고(렘 25:1), 본문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여호야김 1년이기 때문입니다(1절). 하지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는 본문의 성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 13절)

무죄한 피(8~15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메시지 전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2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외치며(8절),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려고 합니다(15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과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 가운데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행 6~7장 참고)

Q.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외치며 모여든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 선 예레미야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¹⁰⁶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¹⁰⁷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¹⁰⁸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¹⁰⁹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¹¹⁰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¹¹¹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¹¹²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¹¹³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갈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¹¹⁴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16~17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무죄한 죄를 흘리게 하려고 할 때(8, 15절), “그의 죽음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종교 지도자)은 예레미야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고관들과 장로들(정치 지도자)은 그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16~17절).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18~2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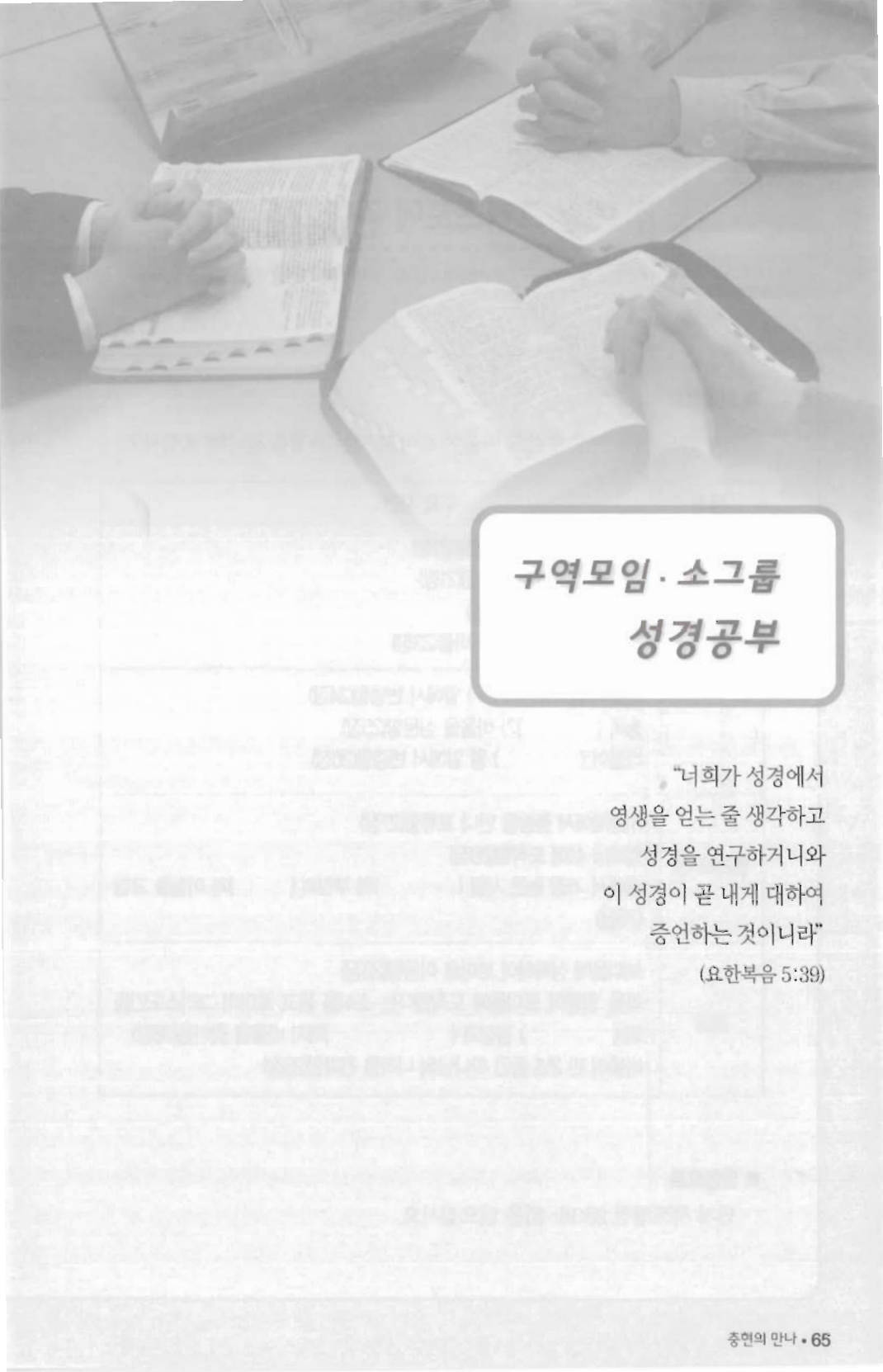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0년 전에 미가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화개하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했습니다(18~19절). 또한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으니, 두 사람 이상의 선지자들이 같은 말씀을 증거해 왔다면 적어도 그 경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2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20, 24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는 부패한 정치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흐려진 지상 교회의 특징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Q.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3월 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십시오.

장소	주요 사건
예루살렘	· 선교 보고와 구제금 전달(21장) ·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됨(21장) · 바울의 변호 연설(22장) · 공회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23장)
()	· 바울이 총독 () 앞에서 변명함(24장) · 총독 ()가 바울을 심문함(25장) · 바울이 () 왕 앞에서 변증함(26장)
멜리데 섬	·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함(27장) · 멜리데 섬에 도착함(28장) ·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의 부친의 ()과 이질을 고침(28장)
로마	· 보디올에 상륙하여 로마로 이동함(28장) ·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 광장과 ()까지 바울을 찾아옴(28장) · 바울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28장)

■ 말씀으로

먼저 사도행전 28:16~31을 읽으십시오.

1.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16, 20, 30절)

2.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뒤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그들을 초대할 목적은 무엇입니까?(17~20절)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황제의 법정에서 호소할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변론의 주제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3.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21~22절)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공회로부터 바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21절).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한 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정한 날짜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23절)

5.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24~25절)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벌어졌습니까?

6. 바울은 의견이 분분하여 흩어지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25~28절) 그 말속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합리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시각장애인이 된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고 말하며 복음이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7. 바울이 로마에서 만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는 중에 힘써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30~31절)

■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다루는 사도행전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확장으로 마감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끝에 올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승리는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 세상으로

1.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2. 지역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3월 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예레미야 21장은 19장~20장에서 다룬 사건들이 일어난 지 10년쯤 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4절). 이와 같은 상황을 오래 전부터 예고해 왔던 예레미야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입을 직접 목격하고 서야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먼저 회개하기보다 그저 눈앞에 닥친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어려움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 말씀으로

먼저 예레미야 21:1~14을 읽으십시오.

1.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자세는 어떠합니까?(1~2절)

본문 예레미야 21:1~14 찬송가 449장, 516장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보다는 □□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3~7절)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갈대아인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시드기야는 자신이 상대할 적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8~10절)

3월 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인에게로 나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에 남아 있는 것은 □□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4. 하나님이 유다 왕가에게 내리신 경고는 무엇입니까?(11~12절)

5. 하나님이 왕궁과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13~14절)

6.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7.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유다 왕의 집’ (11절)과 ‘다윗의 집’ (12절)은 유다 왕국을 거룩하고 의롭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가에 속한 모든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책임과 사명을 망각한 채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이 될, 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롬 15:12).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의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의 길’이나 ‘생명의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곧 ☐이요 ☐☐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요 14:6).

■ 세상으로

1.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를 기도한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2.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3월 15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여호와와의 진노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꼭 전해야 합니다.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 줄 수 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예레미야 25:15~38을 읽으십시오.

1.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15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술잔은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2.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습니까?(18절)

본문 예레미야 25:15~38 찬송가 265장, 180장

3. 유다 백성에 이어서 여호와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래의 지도에 표시해 보십시오(18~26절).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이어 이방 열국들에게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3월 15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왜 거절할 수 없습니까?(27~29절)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방 열국들이 그 재앙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그보다 더욱 큼니다(벧전 4:17~18).

5.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 5:24

6. 본문에서 예레미아가 말하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32~38절)

7.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나라, 민족, 개인 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당할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십니다(32~33절).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일차적으로 각 민족의 임금을 가리키지만(34~38절), 좀 더 넓게 백성의 지도자들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불의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된 우리가 더 큰 □□을 받을 줄 알고 □□이 많이 되지 말라”(약 3:1). 하지만 우리에게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을 버리거니와”(요 10:11).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으로 □□을 얻게 하고 더 □□□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 세상으로

1. 우리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그리스도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3월 2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강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가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그분께로 안내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로마서 4:1~25을 읽으십시오.

1.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1~3절)

2.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4~5절)

고용주가 일꾼에게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고용주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6~8절)

4.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과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9~12절)

3월 2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5. 우리가 어떤 성도를 가리켜 “저 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참 좋다’라는 말은 ‘신앙생활(행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된다’라는 말속에서 ‘내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된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6. 아브라함이 비랄 수 없는 중에 비라고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17~22절)

7.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23~25절)

8.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보증만이 아니라, 실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 세상으로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2.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3월 2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러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압력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의 대가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 말씀으로

먼저 로마서 8:1~39을 읽으십시오.

1.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본문 로마서 8:1~39 찬송가 191장, 56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5~11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3.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12~17절)

3월 2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8~22절)

피조물들이 성도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
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21절).

5.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26~27절)

6.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30절)

7. 성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31~39절)

8.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32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세상으로

1.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2.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3월

Copyright ©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한 · 집필진 | 김규식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물]